

아파트 부실시공 무관용 엄정 대응

IH, 평화지구@ 철근누락 기둥 4개소 보강완료... 입주예정지들에 주민설명회 개최

익산시가 아파트 부실시공 등 진행 중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 따른 시공사 점검 결과, 문제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법적책임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IH) 전북지사(지사장 윤우준)는 무량단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철근누락단지 5곳에 포함된 익산병화 공공주택은 구조 검토품결과, 보강조치를 완료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에 알렸다.

IH 관계자는 "평화지구는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므로 즉시 보강완료

돼 안전에 우려없이 공개 제외됐다"며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설계당시 진단보강근 누락 3개소, 오류 1개소로 한국콘크리트화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상부 구조체 보강시공을 통해 즉각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경수 주택과장은 "해당 입주세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가 완료된 진단보강 기둥 4개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 최종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IH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IH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불었다.

IH는 "앞으로 입주예정자(현재 409가구)들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며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안전점검 기관 선정방식 등을 결정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공유하여 공정한 조사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익산시에 전달했다.

민 과장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레지오넬라증 집중 예방관리

군산시, 다중이용시설 49개소 환경 표본검사 진행

군산시보건소는 18일 관내 다중이용 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 표본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연중 발생할 수 있으나 고온다습한 여름에서 초가를 집단 발생의 위험이 있다.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대형쇼핑센터, 목욕탕, 소, 숙박업소 등)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법 안내 및 위생 지도를 실시하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 23개소의 환경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9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14개소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며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 시설의 청소와 소독을 지도하고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기침, 고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소화기계 증상(설사, 구토 등), 심각한 경우 정신착란, 실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레지오넬라증의 잠복기는 몇 시간~10일로 증상에 따라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구분되며 폐렴형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은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냉각탑, 수돗물 저수조,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해야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마장동 산책길 야간경관 개선 완료

군산시는 사후 대응적 접근이 아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마장동 산책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업 위치는 군산원예농원 뒤편 농지에 맞닿아있는 산책길로,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있고 경포천 산책길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 하지만 조도가 낮아 불안감을 주던 길이었다.

이곳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불타도형 조명과 비타조명을 연속적으로 설치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면서 야간의 불거리를 제공해 시각적 즐거움은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작은 즐거움과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도시이기에 항상 상에 보탬이 되도록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감사위, 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의혹 자체감사 착수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일부 인원이 제기한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나선다.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의뢰에 따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착수 여부'를 안전으로 상정하여 특별감사 여부를 편성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사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를 둘러싼 모든 비리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수 위원장은 "시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민에 보도된 내용을 총망라해 진실 여부를 규명하는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익산 대표관광지 유입 시작

전주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한 관광객들이 익산 대표 관광지로 유입되고 있다.

시는 전주 한옥마을 ~ 익산 고스라를 연계한 전통문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은 세계문화유산 백제고도 익산을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시티투어에 높은 사전 예약률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범운영기간을 당초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노선을 1개 코스로 단일화해 익산 대표 관광지 홍보에 집중도를 높였다.

버스는 오전 10시 한옥마을 출발, 11시 고스라 도착, 12시 50분 아가페정원 도착, 14시 마루까지 경우해 16시 한



익산으로 도착한다.

전통문화 시티투어를 통한 익산 홍보 활성화를 위해 모든 승객들에게 고스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해 더욱 부담 없는 가격에 익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티투어 탑승료는 성인 기준 4,000원이며, 20인 단체 3,000원, 초중고 등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보물찾기 축제, 재미 · 안전 · 흥행 모두 잡는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개최

익산 보물찾기축제가 게임형식을 결합해 재미·안전·흥행을 모두 잡는다.

시는 AR(증강현실)기법으로 눈앞에 보이는 보물을 찾아 게임 재미를 더하고 참가자들 동선을 계획적으로 분산시켜 안전도 확보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제2회 익산 보물찾기 축제'가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3일간 익산기금속보석공업단지과 익산 보석 박물관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축제는 보석산업과 문화를 결합하여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귀금속보석단지를 보석문화거리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주최측은 올해 축제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켜 보물찾기에 게임을 결합한 게이미피케이션 축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 변화시켜 보물찾기에 게임을 결합한 게이미피케이션 축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밀집과 혼잡을 일으켰던 오픈라인 쪽지 방식을 벗어나 올하는 AR(증강현실) 기법을 도입해 보석단지 곳곳을 돌아보게 했다. AR은 과거 유행했던 포켓몬고와 같은 디지털 기술로 핸드폰을 통해 보물찾기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AR 프로그램에 따라 축제 참가자들이 보물을 찾아 넓게 분산되어 특정 지역에 순간적으로 밀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혹서기도 발생할 수 있는 밀집 현상에 대비해 현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리적인 분산을 시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축제 참가자 수를 제한해 쾌적하고 안정된 공간 확보에서 적정인원이 즐길 수 있도록 축제의 질을 높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미공군 8전투비행단 신입장교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군산시는 18일 티모시 B 머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신입 간부 장교 30여명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와 현장 탐방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개최된 시정설명회에서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등 향후 군산에 구축될 인프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등 주요 시책을 소개하며 미공군의 군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미공군 신입장교진은 근대역사박물관



관과 고군산군도에서 군산의 역사와 관광자원도 체험했다.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과거 해상 물류유통의 중심지였

던 옛 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 근대 문화자원을 소개받고, 고군산군도 중심 섬으로 경관이 뛰어난 선유도 망주봉 일원과 지난 12월 스카이워크로 재단장한 장자교도 둘러봤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사회와 미공군 간의 친선 교류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어 미공군이 군산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고 군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결선대회 개최

오는 19일과 2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실내전시장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전국 결선대회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스�포츠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전국결선대회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선발된 17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게임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5인 단체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개인전, 4명),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개인, 2명)

으로 진행되며 종합 우승을 달성한 지자체는 대통령상과 우승 트로피를 받는다.

정식 종목 1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3위는 한국 e스포츠협회장상을 받는다. 총상금은 3000만원이다.

대회 당일에는 게임경기 뿐만 아니라 드론경기체험, RC카 레이싱 서킷, VR직업체험관, 아케이드 게임존, 게임 코스프레, 게임 이벤트스텝퍼디션, 대형전자 롤렛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